

## 5주차 개츠비는 과연 위대한가?



이미지 출처: <위대한 개츠비>(1974)의 한 장면, 네이버 영화

강의 이소윤

## 프랜시스 스콧 키 피츠제럴드 Francis Scott Key Fitzgerald (1896-1940)

- 1896년 9월 24일 미국 미네소타 주 세인트폴의 중산층 가정에서 출생.
- 1917년 프린스턴 대학을 그만두고 군대에 들어가 육군 소위로 임관.
- 1918년 7월 앨라배마 주 몽고메리 근처 군기지 복무 시절, 컨트리 클럽에서 젤다 세어를 만남.
- 1919년 2월 제대 후 뉴욕 광고 회사에 취직, 구두 약혼을 한 젤다에게 파혼 당함.
- 1920년 3월 26일 자전적 소설 『낙원의 이쪽』 출간. 그해 베스트 셀러로 선정.
- 1920년 4월 3일 젤다와 결혼.



## 프랜시스 스콧 키 피츠제럴드 Francis Scott Key Fitzgerald (1896-1940)

- 1921년 5~7월 젤다와 함께 처음으로 유럽 여행을 떠남.
- 1922년 단편집 『재즈 시대의 이야기』 출간.
- 1924년 4월 유럽으로 떠나 파리, 로마, 카프리, 리비에라 등에서 거주.
- 1925년 『위대한 개츠비』 출간. 엘리엇과 헤밍웨이가 극찬하나 실패.
- 1937년 7월 부채에 시달리다가 세번째로 할리우드로 건너가 주당 1000달러의 조건으로 MGM사와 계약.
- 1940년 12월 21일 할리우드에서 심장마비로 사망.



이미지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 젤다 피츠제럴드Zelda Fitzgerald(1900-1948)

- 1900년 7월 24일 미국 앨라배마 주 대법원 판사의 6자녀 중 막내로 태어남.
- 1918년 7월 몽고메리 컨트리클럽 댄스파티에서 피츠제럴드와 처음 만남.
- 1921년 10월 26일 딸 프랜시스를 출산. 출산 직후 “이 애가 아름다운 바보, 작고 예쁜 바보로 자랐으면 좋겠어.”라고 말함.
- 1922년 이때부터 꾸준히 에세이와 단편을 썼지만 사장되거나 부부 공저, 스콧 작품으로 발표됨.
- 1925년 4월 말 딩고 아메리칸 바에서 피츠제럴드와 헤밍웨이의 역사적 첫만남.



이미지 출처: 위키백과

## 젤다 피츠제럴드Zelda Fitzgerald(1900-1948)

- 1930년 신경쇠약 악화로 병원에 입원. 이후 입원과 퇴원을 반복. 조현병 진단을 받음.
- 1936년 스콧이 비용 문제로 젤다를 셰퍼드프랫 병원에서 하이랜드 병원으로 옮김.
- 1940년 12월 21일 스콧이 심장마비로 사망.
- 1948년 3월 10일 하이랜드 병원 화재 사고로 사망. 당시 전기 충격 요법을 받기 위해 병실에 갇혀 있던 젤다를 포함하여 아홉 명의 여성이 사망함.
- 1970년 전기 작가 낸시 밀퍼드의 <젤다>가 출간되어 풀리처상 최종 후보에 오름. 베스트셀러가 되며 젤다의 삶이 재조명되기 시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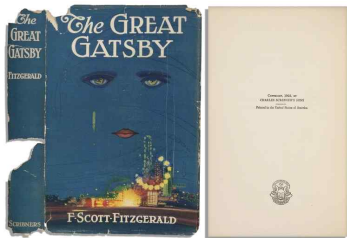
## 1920년대, “재즈의 시대Jazz Age”

- 미국에서 1920년대는 ‘광란의 20년대(Roaring Twenties)’로 부를 만큼 번영과 환락이 극에 이른 시대.
- 1919년 제1차 세계대전의 종전. 자유분방한 재즈와 더불어 찰스턴(Charleston)과 같은 광란의 춤이 유행.
- 1920년대를 ‘재즈 시대(Jazz Age)’로 부른 피츠제럴드. “재즈 시대의 특성은 정치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
-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웠지만 정신은 빈곤했음.
- 1920년대에 재력을 표현하는 상징이자 실체는 자동차. 사실상 자동차 소설인 『위대한 개츠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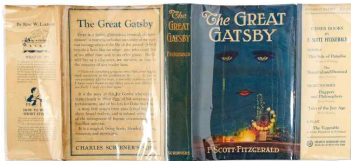


이미지 출처: <https://blog.naver.com/bit salon1/221327337816>

## 피츠제럴드 사후 재조명을 받은 『위대한 개츠비』



- 『위대한 개츠비』(1925)가 출간되자 T.S.엘리어트는 편지를 보내 긍정적으로 평가
- 헤밍웨이는 이 소설에 자극을 받아 1926년에 첫번째 소설 『태양은 또다시 떠오른다』를 출간.
- 출판 시장에서는 이전 작품들에 못미친다며 '피츠제럴드의 종언'을 선포.
- 피츠제럴드 사후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군인들은 『위대한 개츠비』의 열렬한 독자가 됨.
- 1950년대에 미국 전 고교생들의 필독서가 되고 이후 전세계적으로 수천만부가 팔린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됨.



## 피츠제럴드 사후 재조명을 받은 『위대한 개츠비』

- 다섯 편의 영화화도 소설의 흥행에 큰 영향을 끼침. 1974년작 『위대한 개츠비』는 개츠비에 대한 인상을 강하게 남김.

“그는 사려 깊은 미소를 지었다. 아니, 사려 깊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는 미소였다. 영원히 변치 않을 듯한 확신을 내비치는, 평생 가도 네뎃 번밖에는 만날 수 없는 보기 드문 미소 말이다. 한순간 외부 세계를 대면하고 있는-또는 대면하고 있는 듯한- 미소였고, 또한 어쩔 수 없이 당신을 좋아할 수밖에 없으며 당신에게 온 정신을 쏟겠다고 맹세하는 듯한 미소였다. 당신이 이해받고 싶은 만큼 당신을 이해하고 있고, 당신이 스스로 믿는 만큼 당신을 믿고 있으며, 당신이 전달하고 싶어 하는 최상의 호의적인 인상을 분명히 전달받았노라고 말해 주는 그런 미소였던 것이다. 바로 그 순간, 그 미소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

F. 스콧. 피츠제럴드, 『위대한 개츠비』, 김욱동 역, 민음사, 2003.



이미지 출처: 다음 영화/네이버 영화



## 개츠비는 과연 위대한가?

첫째, 희망에 대한 집념과 재능이다. 희망을 아편으로 보는 사람들도 없진 않지만, 대다수 인간에게 희망은 위대하다. 따라서 희망에 대한 집념을 버리지 않는 건 물론이고 희망을 체화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진 개츠비는 위대하다.

둘째, 물질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보는 '정신 우선주의'다. 부(富)를 잃어버린 여인을 되찾기 위한 수단으로만 본 개츠비는 위대하다.

셋째, 사랑 그 자체에 모든 것을 거는 순애주의다. 사랑을 물질의 종속에서 구해내는 동시에 결과적으로 순애(純愛)를 넘어선 순애(殉愛)의 경지에 이른 개츠비는 위대하다.

넷째, 낭만적 민감성이다. 물질적 민감성과 낭만적 둔감성이 시대정신으로 예찬받던 시기에 낭만적 민감성의 화신이라 할 개츠비는 위대하다.

다섯째, 파멸의 예감에서 비롯되는 미학적 숭고함이다. 전 생애에 걸쳐 아메리칸드림에 대한 집념과 좌절을 보여준 개츠비는 비극적 최후를 맞이함으로써 위대해졌다.

여섯째, 위대하다는 건 어리석고 우스꽝스럽기까지 한 개츠비의 삶과 죽음에 대한 풍자일 뿐이다.

일곱째, 작가 자신의 자전적 요소를 풍성하게 가미해 만들어낸 개츠비라는 인물은 작가 자신의 삶에 대한 위로라는 점에서 위대해야만 한다. 작가가 '위대한 개츠비'라는 제목에 대해 보인 엉거주춤한 자세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니었을까?

강준만, 「개츠비는 왜 위대한가」, 『인물과사상』, 인물과사상사, 2013.

## 개츠비는 과연 위대한가?

나는 이제 더 이상 특권을 지닌 시선으로 인간의 내면세계를 오만하게 들여다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오직 이 책에 이름을 제공해 준 개츠비만이 내가 이러한 식으로 반응하지 않은 예외적인 인물이었다- 내가 드러내놓고 경멸해 마지 않는 것을 모두 대변하는 개츠비 말이다. 그러나 만약 인간의 개성이라는 게 일련의 성공적인 몸짓이라면 그에게는 뭔가 멋진 구석이 있다고 할 수 있었다. 그는 마치 1만 5000킬로미터 밖에서 일어나는 지진을 감지하는 복잡한 지진계와 연결되어 있기라도 한 것처럼 삶의 가능성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러한 민감성은 '창조적 기질'이라는 이름으로 미화되는 그런 진부한 감수성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것은 희망에 대한 탁월한 재능이요, 다른 어떤 사람한테서도 일찍이 발견한 적이 없고 또 앞으로도 다시는 발견할 수 없을 것 같은 낭만적인 민감성이었다. 그래, 결국 개츠비는 옳았다. 내가 잠시나마 인간의 속절없는 슬픔과 숨 가쁜 환희에 흥미를 잃어버렸던 것은 개츠비를 희생물로 삼은 것들, 개츠비의 꿈이 지나간 자리에 떠도는 더러운 먼지들 때문이었다.

F. 스콧. 피츠제럴드, 『위대한 개츠비』, 김욱동 역, 민음사, 2003.

## “성배 찾기”로서의 데이지를 향한 욕망

데이지는 그가 난생처음으로 알게 된 ‘우아한’ 여자였다. 그는 온갖 숨겨진 능력을 발휘해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 만나긴 했지만 그들과의 사이에는 언제나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철조망이 가로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때 그는 자신이 전력을 다해 성배(聖杯)를 좇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녀가 특별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우아한’ 여자가 도대체 얼마큼이나 특별할 수 있는지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그 도시에서 가장 싱그럽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영원히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그는 그 옛날의 따뜻한 세계를 상실했다고, 단 하나의 꿈을 품고 너무 오랫동안 살아온 것에 대해 값비싼 대가를 치렀다고 느꼈던 것이 틀림없다.



F. 스콧. 피츠제럴드, 『위대한 개츠비』, 김옥동 역, 민음사, 2003.

## “성배 찾기”로서의 데이지를 향한 욕망

작별 인사를 하러 개츠비에게 갔을 때 그의 얼굴에는 다시 당혹스러운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지금 그가 누리고 있는 행복이 얼마만 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어렴풋이 의심이 생긴 듯한 표정이었다. 오 년에 가까운 세월! 심지어 그날 오후에도 데이지가 그의 꿈에 미치지 못하는 순간이 있었을지 모른다. 물론 그녀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가 품어 온 환상의 거대한 힘 때문에 말이다. 그 환상의 힘은 그녀를 초월하였으며 모든 것을 뛰어넘었다. 그는 창조적인 열정으로 직접 그 환상에 뛰어들어 그 환상을 끊임없이 부풀어 오르게 했으며, 자신의 길 앞에 떠도는 온갖 빛나는 깃털로 그 환상을 장식했던 것이다. 그 어떤 정열도, 그 어떤 순수함도 한 인간이 그의 유령 같은 가슴속에 품게 될 것에 도전할 수 없으리라.

F. 스콧. 피츠제럴드, 『위대한 개츠비』, 김옥동 역, 민음사,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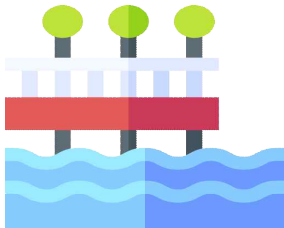


## “성배 찾기”로서의 데이지를 향한 욕망

“안개만 끼지 않았더라면 만 건너에 있는 당신 집이 보일 겁니다. 당신 집의 부두 끝에는 항상 밤새 도록 초록빛 불이 켜져 있더군요.” 개츠비가 말했다.

데이지는 느닷없이 개츠비에게 팔짱을 끼었지만 그는 자기가 방금 한 말에 정신이 팔려 있는 것 같았다. 아마 그 불빛이 지니고 있던 엄청난 의미가 이제 영원히 사라져 버렸다는 생각이 불현듯 떠올랐는지도 모른다. 그를 데이지와 갈라놓았던 그 엄청난 거리와 비교해 보면 그 불빛은 그녀와 아주 가까이, 거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정도로 가까이 있는 것 같았다. 달 가까이 있는 어떤 별처럼 그렇게 가깝게 보였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다시 한낱 부두에 켜져 있는 초록색 불빛에 지나지 않았다. 그에게 마법을 부렸던 물건 중 하나가 줄어든 셈이었다.

F. 스콧. 피츠제럴드, 『위대한 개츠비』, 김육동 역, 민음사, 2003.



## “성배 찾기”로서의 데이지를 향한 욕망

“나 같으면 그녀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는 않을 겁니다. 과거는 반복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불쑥 말했다.

“과거를 반복할 수 없다고요? 아뇨, 반복할 수 있고말고요!” 그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듯 큰 소리로 말했다.

그는 마치 과거가 바로 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자기 집 앞 그늘진 구석에 숨어 있기라도 하듯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난 모든 것을 옛날과 똑같이 돌려놓을 생각입니다. 그녀도 알게 될 겁니다.” 그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는 그 과거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고, 나는 그가 되돌리고 싶은 것이 데이지를 사랑하는 데 들 어간, 그 자신에 대한 어떤 관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뒤로 그의 삶은 혼란스럽고 무 질서해졌지만, 만약 다시 한 번 출발점으로 돌아가 천천히 모든 것을 다시 음미할 수만 있다면,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었으리라…….

F. 스콧. 피츠제럴드, 『위대한 개츠비』, 김옥동 역, 민음사, 2003.

## “아름답고 귀여운 바보”를 가장한 데이지

“반짝이는 두 눈이며 정열적으로 빛나는 입, 눈부신 광채 때문에 그녀의 얼굴은 슬프면서도 사랑스럽게 보였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녀를 사랑해 본 남자라면 좀처럼 잊기 힘든 어떤 흥분이 깃들어 있었다.

이따금 미스 베이커와 데이지는 둘이서 이야기를 나눴다. 색다른 화제도 없이 주고받는 시시껄렁한 대화는 그냥 잡담이라고 하기도 어려울 정도였다. 그들이 입고 있는 흰 드레스처럼, 아무런 욕망도 찾아볼 수 없는 무심한 눈동자처럼 썰렁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돈으로 가득 차 있어요.” 갑자기 그가 말했다.

바로 그것이었다. 전에는 그걸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데이지의 목소리는 돈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안에서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끝없는 매력, 그 딸랑거리는 소리, 그 심벌즈 같은 노랫소리……. 하얀 궁전 속 저 높은 곳에 공주님이, 그 황금의 아가씨가…….

F. 스콧. 피츠제럴드, 『위대한 개츠비』, 김욱동 역, 민음사, 2003.



## “아름답고 귀여운 바보”를 가장한 데이지

‘괜찮아. 딸이라서 기쁘지 뭐야. 그리고 이 애가 커서 바보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러는 편이 제일 좋으니까……. 아름답고 귀여운 바보 말이야.’하고 말했지요.

내 생각 같아서는, 데이지는 당장 어린애를 안고 그 집을 뛰쳐나와야 했지만 그녀는 그럴 생각이 조금도 없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기 삶이 지금 당장 어떤 형태를 갖추기를 바랐다. 그런데 그 결단은 어떤 힘에 의해 이루어져야 했다-사랑, 돈 또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현실적인 이유 같은 것에 의해서 말이다.

낡고 진부한 미사여구에, 짜증나는 날것 그대로의 투박스러운 활기에, 그리고 지름길을 따라 그곳 주민들을 무(無)에서 무로 몰고 가는, 너무나 강요하는 듯한 운명에 섬뜩함을 느꼈다. 그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바로 그 단순함에서 뭔가 무서운 것을 발견했던 것이다.

F. 스콧. 피츠제럴드, 『위대한 개츠비』, 김욱동 역, 민음사, 2003.



## 소설 속 공간-'서부'와 '동부'

이제 나는 이 이야기가 결국 서부의 이야기였다는 것을 알고 있다. 톰과 개츠비, 데이지와 조던과 나는 모두 서부 출신이었고, 어쩌면 우리는 왠지 동부의 삶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어떤 결함을 공유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F. 스콧. 피츠제럴드, 『위대한 개츠비』, 김욱동 역, 민음사, 2003.

## 소설 속 공간-'서부'와 '동부'



이제 중서부 지방은 이제 세계의 활기찬 중심지가 아니라 우주의 초라한 변두리 같았다.  
그래서 나는 동부로 가서 채권 사업을 배우기로 결정했다.

서부에서는 사뭇 달랐다. 서부에서는 저녁 시간이 비록 실망스럽지만 끊임없이 뭔가를 기대하거나, 아니면 순간순간의 긴장된 두려움 속에서 쫓기듯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결말을 향해 치달게 마련이었다.

나는 뉴욕이 좋아지기 시작했다. 활기에 넘치고 모험으로 가득한 밤의 분위기와 끊임없이 명멸하는 남녀와 자동차들이 들떠 있는 눈동자에 안겨 주는 만족감이 마음에 들기 시작한 것이다.

퀸스보로 다리에서 바라보는 뉴욕은 언제나 처음 보는 도시 같았고, 여전히 이 세상의 모든 신비와 아름다움에 대한 터무니없는 첫 약속을 간직하고 있었다.

F. 스콧. 피츠제럴드, 『위대한 개츠비』, 김욱동 역, 민음사, 2003.

## 소설 속 공간-'서부'와 '동부'



웨스트에그와 서부



이스트에그와 동부

# 영화 <위대한 개츠비>(2013)



이미지 출처: 네이버 영화

- 2013년 칸 영화제 개막작
- 2014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미술상과 의상상을 수상
- 술에 취해 흥청망청 거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개츠비의 화려한 파티
- 재즈시대라 일컬어지는 1920년대의 미국을 시각적으로 훌륭하게 재현

## 영화 <위대한 개츠비>(2013)



이미지 출처: 네이버 영화

- 자신의 경제적 성공을 화려하게 과시하는 인물
- 영화 속 중간 중간 흐름을 끊는 전화와 그것을 받는 개츠비의 불안한 표정
- 개츠비는 닉으로부터 관찰되는 대상일 뿐 아니라 닉을 관찰하는 대상이기도 함

## 영화 <위대한 개츠비>(2013)



이미지 출처: 네이버 영화

- 요양원에서 정신병원 의사와 면담하는 닉
- 알코올 중독, 공황장애, 불면증, 우울증 등
- 글쓰는 행위를 통해 개츠비의 이야기를 하는 닉
- 영화 전체가 닉의 치유과정으로서 의미를 지님
- 개츠비와 닉의 관계가 더 중요시됨

## 영화 <위대한 개츠비>(2013)



이미지 출처: 네이버 영화

- 데이지와 함께 등장하는 배경음악 <Young and Beautiful>
- 자신이 더 이상 젊고 아름답지 않아도 사랑해줄 수 있냐고 되묻는 가사
- 데이지가 영원한 사랑을 갈망하고 있음을 암시
- 개츠비와 다시 사랑에 빠지는 데이지의 마음 역시 순수한 것임을 강조

## 질문거리들

- 소설 속 명구절과 영화 속 명대사를 비교해보자.
- 소설 속 데이지와 영화 속 데이지는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가?  
인물의 형상이 더 설득력을 지니는 경우는 소설인가, 혹은 영화인가?
- 소설 속 장례식 장면과 영화 속 장례식 장면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왜 영화 감독은 그러한 차이를 만들어냈을까?  
그 차이가 개츠비의 ‘꿈’과 관련하여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 참고문헌

- F. 스콧. 피츠제럴드, 『위대한 개츠비』, 김옥동 옮김, 민음사, 2003.
- 젤다 피츠제럴드, 『젤다』, 이재경 역고 옮김, HB PRESS, 2019.
- 강준만, 「개츠비는 왜 위대한가」, 『인물과 사상』, 인물과 사상사, 2013.
- 고영란, 「"위대한 개츠비"를 위한 서술 기법」, 『근대 영미소설』19-1, 한국근대영미소설학회, 2012.
- 엄광웅, 「『위대한 개츠비』에 나타난 미국의 꿈과 상징성 연구」, 신한영미어문학회, 1997.
- 최선화, 「위대한 개츠비-소설에서 영화로」, 『현대영미어문학』31-4, 현대영미어문학회, 2013.